

배움의 삶 · 나눔의 생활화 · 생명공동체 실현

경기불교

• 발행처/ 경기불교문화원 • 이사장/ 김태제 • 발행인/ 진철희 • 편집인/ 권중서, 이현주, 엄명희 • 주소/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101-3 4층
• 전화/ 031)251-1083 • FAX/ 031)257-1083 • http://www.paragate.org • E-mail : budsos@paragate.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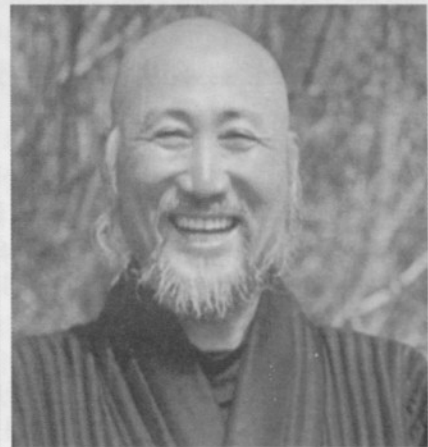
백신에게 듣는다<스물아홉번째>

범주 큰스님 초청 열린법회

- 주제 : 현대인과 선학
- 일시 : 불기2549(2005)년 8월 20일(토) 15시
- 장소 : 경기불교문화원 큰법당

범주큰스님 약력

- ▶ 1966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전강 대선사 문하 입산
- ▶ 1967-1976 법보선원을 위시해서 전국 각 선원에서 참선수행
- ▶ 1977 안국사(무주, 적상산)주지
- ▶ 1978 한국 승려 청목회 창립전 (초대회장)외 20회 선목전
한국 명인 서화전 출품(출판회관 화랑)
- ▶ 1981 국제포교사로 도미(로스엔젤레스, 달마사 주지)
- ▶ 2002 부산불교교육대학 20주년기념 초대 범주선목전
- ▶ 2005 속리산 달마선원장(현)



8월 사찰환경 답사

〈도피안사, 제2땅굴, 철원평야, 심원사〉



- 일 시 : 2005년 8월 21
- 출발지 : 오전7시30분-경기불교문화원앞
- 동참금 - 3만원
(중식비/간식/여행자보험/사찰입장료포함)

8월호



권두언

21세기 우리나라

마녀 사냥...

보현진열/감로암사 분향주

- 또 '동네 북'을 두드릴 주기가 됐는가? -

요즘 서울 수경사 문제가 화제로 언론 매체에 오르내린다. 그런데 문제가 불거져서, 자비스런 스님이 하루 아침에 무서운 악마의 하수인(=마녀)으로 전락하고 말았는데, 그 배경이 여간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tv 매체들에서 어제는 거룩한 부처님의 화신으로 방영했다가, 다음날은 정반대로 부처님 얼굴을 한 사탄의 모습을 촬영해서 내보냈다. 왜 똑같은 tv 매체들이 서로 다른 수경사 모습을 내보내는가? 애당초부터 촬영하거나 방영하는 태도에는 그들의 습성대로 후호적인 의도와 적대적인 저의가 깊이 깔린 뉴스의 편집 계획이 있었다고 보아진다.

이것은 미끼 주다가 확 낚아채는 치명타를 안겨주는 전형적인 매체의 권력 남용이지만, 이 진부한 조작 놀음에 당당아서 웃고 우는 연출을 마다 않는 시청자들이 더 '어린 백성'이라, 늘 그런 곳에는 현대판 마녀 사냥이 발생하곤 한다.

어린 백성은 매체에서 보여준 그대로를 100% 사실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며 회노에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령, 극 중의 인물의 연출을 보고 실제의 인물의 됃됨이를 동일하게 보는 것과 아주 흡사하다. 극 중에서 악독한 시어미가 실제로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어린 백성일수록 그 극을 보고, 시장이나 거리에서 그 시어미 역할을 한 사람을 보면 그녀에게 돌팔매질을 하고 만다.

이것이 우중愚衆의 대표적인 폭거로서 나타나면, 인민 재판이요 마녀 사냥이나 빨갱이 사냥일 것이다. 마녀 사냥은 서양 중세에서 1400-1700 년 사이에 전성을 누리던 카톨릭교의 종교 재판으로서, 여성이나 과부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희생함으로써 당시 귀족이나 신부의 지배층이 자신들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이용했다.

기독교 사회에서 악마나 사탄(이나 그런 사주를 받은 듯한 행동)은 신자들에게 마땅히 강열한 적개심과 원망慾望의 표적이다. 경제가 불황이고 지도층이 부패하는 가운데 국민이 살아가기 힘들어 안으로 불만과 짜증이 쌓여 폭발할 기회를 찾을 즈음에, 마녀 사냥 같은 희생제犧牲祭가 벌어지곤 한다. 기폭제가 되는 때에는 언제나 누군가가 "저기 마녀다!!" 하면, 우중은 부화뇌동으로 돌변해서 그 마녀로 지목된 자를 향해 왕따와 죽음의 돌을 던지는 것이 오랜 전통이다.

빨갱이 사냥은 1950년 미국에서 일어난 극단적인 반공 광풍을 말한다. 메카시즘 McCarthyism 이라 하며, 냉전의 갈등이 심화될수록 없는 근거를 조작해서라도 정적政敵이나 미운 자들을 잡아다 죽이는 정치 재판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래까지 그런 빨갱이 사냥의 전통과 선풍이 맥을 고스란히 유지했었다. 특히 군사 독재 정권에서 즐겨 써먹던 국시國是였다.

인민 재판은 한국 전쟁 때 있었고, 일부 공산 국가나 독재 정권에서 뚜렷한 근거나 마땅한 절차도 없이, 인민들이 보는 가운데 누군가 "저 사람 처단하시오!!"하면, 자주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것을 말한다. 요즘 말로 하면, 어떤 조직이나 사회에서 단지 밋거나 거슬린다는 것만으로 상대를 왕따 시키고 죽이는 행위이겠다.

마녀 사냥이나 빨갱이 사냥이나 인민 재판 등은 불안한 시국時局에서 그 분출구를 평소에 미워했던 어떤 개인이나 집단을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여론에 의한 집단 히스테리 증상의 증폭에는 역올한 희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수경사 문제도 그런 배경을 가진 사회적 여건에서 발생한 '일부 사건'이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세대의 주류는 40 대 이하로 거의 기독교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불교에 대해서는 거의 백지 상태인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은연중 불교를 사탄의 종교나 악마의 무리로 보고, 강열한 적개심과 이단 척결의 십자군으로 나서려는 행동을 서슴치 않는다. 마애불을 훼손하거나 사찰을 불상들을 망가뜨리는 것은 그런 비밀비제한 예일 뿐이다. 인터넷 상에 불물 터지듯 온갖 욕설과 비난과 저주로써 도배하는 것 등은 21세기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마녀 사냥에 지나지 않는다. 관련 몇몇 골수 광신 분자들이 음모 작당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며, 표적된 절 수경사를 절단내기로 한 것이다.

어린 백성의 질타에 못이겨 경찰이 구색을 맞추려는 수사와 언론의 인권 침해에 길들여진 독화 방영은 가히 또 하나의 마녀 사냥 쾌감에 도취하기에 족하다. 오늘도 '동네 북'을 쳐서 자신들의 스트레스를 날릴 이기적인 카타르시스에 몰입하고 있다. 그들은 동네 북을 두드릴 주기週期가 다달아서 또 심심해서 두드린 것 밖에 없다고 변명하겠지만.... 상투적으로 '아니면 말고!!' 인가? 그들은 이런 식으로 불교를 암암리에 공격해서 말살하려고 한다. 경기 불교

한방각비 전문점 고향숯불각비

대표 : 김 항 식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정자시장내

TEL : 031)256-0339 H.P : 016-425-4896

전국 꽃배달 전문. 세류 꽃 직매장

대표 : 이 태 호

전화 : 031-224-2221, 235-9293

Fax : 031-224-2232

팔 정도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위빠사나 수행.

포교사 위빠사나 강사/이종숙

우선 위빠사나 수행하면 좀 생소하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불교는 간화선을 깨달음으로 가는 유일한 수행법으로 받아들여 왔고, 많은 분들이 지금도 열심히 수행하고 계신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보통의 많은 사람들은 좀더 과학적이고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쉽게 수행할 수 있는 수행법을 원하기도 했다.

마침 시절인연이 되어 1988년 이후에 미얀마의 큰 스승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일반인들에게 위빠사나 수행을 전하셨다. 이 수행법은 부처님이 6년 고행 끝에 부다가야의 보리수 아래서 이 수행방법으로 깨달음을 얻으신 뒤, 당시 수행자들에게 모든 괴로움에서 해탈할 수 있는 유일한 수행방법으로 설하시고, 직접 위빠사나 수행을 수행자들에게 가르치셨다. 다행스럽게 이 수행법은 현대인들이 받아들이기엔 이론적으로 어렵지도 않고, 쉽게 생활 속에서 응용할 수 있으며 매우 과학적이다. 언제 어디서라도 괴로움이 있고 몸과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종교에 관계없이 위빠사나 수행으로 자신을 다스려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럼 이 수행이 어떻게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얻게하는가? 그것은 알아차림(사띠, 기억, 마음챙김, 주시)이라는 마음의 작용을 일으키면 된다. 현재 있는 자신의 호흡이나 몸의 움직임, 지금 이 순간의 느낌과 느낌에 반응하는 마음, 지금 일어나는 생각과 마음의 의도등을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 알아차림만 있으면 그 힘으로 그 순간에 가장 지혜로운 행위를 하고 그 결과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이 위빠사나 수행은 부처님의 성스러운 가르침인 고집멸도 4성제 중에서 네 번째 도성제인 8정도의 한 요소 - 正念(바른 알아차림)을 닦는 것이다. 그런데 바른 알아차림을 하려면 정견과 정사유의 혜가 앞에서 이끌어주고, 정어 정업 정명의 戒가 기본으로 받쳐주면서, 마음의 고요함과 집중을 가져오는 바른 노력과 바른 알아차림과 바른 마음집중의 定이 이어져서 더 높은 단계의 지혜로 올라간다. 즉 정념을 기본으로 계정해 3학이 상호 보완하며 깨달음을 향해 간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직접 위빠사나 수행을 해보면 알 수 있다. 결국 위빠사나 수행은 4성제 - 괴로움의 진리, 괴로움의 원인의 진리, 괴로움 소멸의 진리, 괴로움 소멸에 이르는 길의 진리 - 중에서 마지막 괴로움 소멸에 이르는 길의 진리인 8정도를 닦는 수행방법이다. 즉 괴로움이 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바른 알아차림을 통해서 괴로움의 원인인 갈애와 집착을 벗어나고 괴로움이 소멸한 작은 평화를 경험한다. 그런 알아차림의 작은 지혜들이 모여서 의식을 고양시키고, 점차 고양된 의식들은 모든 법의 무상하고 괴로움이며 무아인 3법인의 진리를 깊이 체험한다. 그 결과 집착할 것이 남아있지 않은, 모든 갈애가 소멸된 열반이라는 깨달음의 세계를 체험한다. 이렇게 깨달음으로 가는 지도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지만 지도가 가르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전적으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수행자의 몫이다. 그럼 이제 남은 문제는 '어떻게 바른 알아차림을 할 것인가'이다. 그것은 부처님의 초기 불교 경전인 대념처경에 신수심법 4념처를 알아차리는 방법을 다 설해 놓으셨다. 경기 불교 문화원에서는 이 경전에 근거하여 9월 1일부터 위빠사나 수행 강좌를 개설 한다. 이 강좌에서는 어떻게 알아차림을 할 것이며, 알아차림을 어떻게 이어가며, 수행 중에 오는 장애를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하여 직접 수행하며 익혀 나간다. 지식을 얻는 공부는 독학이 가능하지만, 지혜를 얻는 공부는 지도하고 면담을 해 줄 수 있는 지도자와, 또 같은 길을 가는 도반들과 함께 공부할 때 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수행의 모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기 불교**

9월 개강강좌안내

* 위빠사나 강좌안내 *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9월 1일 개강)
- 내용 : 강좌/행선
- 기간 : 15주
- 수강료 : 8만원
- 강사 : 이종숙 포교사



가바익스프레스

포장이사 · 일반이사 · 사다리
031)297-2000 / 011-733-1985

감로보석

대표 : 이재익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74-1(선일프라자 107호)
TEL : 031)255-9484 H.P : 017-312-9484



법 문

내가 간절히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면...

설산스님/정토사회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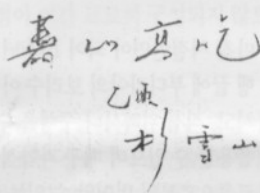


여러 대중을 바라보니 제 마음이 흐뭇하고 여러분들이 모든 복을 지니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경기불교문화원장님과는 인연이 가깝지는 않습니다만 상좌를 통해 제가자인 원장님께서 수원지역 불교 발전을 위해 애쓰신다는 소리를 듣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과연 불교문화원 이 자리에 와 보니 자기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하고자 하여도 힘이 드는데 대중들을 위해 각종 불교 문화강좌와 교리, 백고좌 법회 등 다양하게 법회를 이끌고 있으니 참으로 대견스럽습니다.

특히 수원지역은 제가 젊었을 적에 용주사에 머무른 적이 있습니다. 용주사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조선 정조 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지극한 효를 실천한 사찰로 부모은중경 목판과 범종, 범당 불화 등 많은 국보급 문화재가 있습니다.



여기 경기불교문화원 또한 정조 대왕이 부모를 섬기듯 정성껏 여러분들을 모시고 불교의 진리를 배울 수 있도록 여러 시설이 훌륭하고 부처님도 잘 조성하여 모시고 예경을 드린다니 참으로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법문은 간절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옛날 어떤 이가 자기 남편이 전쟁터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부인은 어떻게 하면 죽거나 다치지 않고 돌아올 수 있을까? 노심초사 남편이 무사하길 빌며 기다릴 때 어떤 한 스님께서 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심에 찬 부인을 바라보던 스님은 당신의 남편이 빨리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었습니다. 스님께서 '근심 걱정 어떤 생각도 하지 말고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라' 고 하셨습니다.

이 부인은 계속하여 '관세음보살' 을 부르다가 그만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옆집 아낙에게 내가 조금 전에 계속하던 말을 들었느냐? 물으니 그 아낙은 이 부인을 끌려줄 욕심으로 말하길 '뒷집서방 내 서방' 이라 하였다 고 말하였습니다. 이부인은 너무 고마워 말의 뜻은 생각지도 않고 '뒷집서방 내 서방' 만 달아가고 해가도 일념으로 서방님이 전쟁터에서 무사히 살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불렀습니다.

정말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력으로 남편이 살아서 집에 돌아와서 보니 '뒷집서방 내 서방' 을 부르니 기가 막혀 아내가 내가 없는 사이에 뒷집서방하고 눈이 맞아 살았구나.' 의심하여 아내를 때리니 이 광경을 목격한 그때 그 스님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느냐? 호통을 치며 '당신이 전쟁터에 있을 때 당신을 생각하며 무사히 돌아오길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는 소리이고 그 말은 내가 가르쳐 준 것 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며 일념으로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실사 '뒷집서방 내 서방' 으로 불려도 관세음보살이 보살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관세음보살을 어떻게 그 명호를 부르십니까? 부처님 당시에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왜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부릅니까? 하고 여쭙니 부처님께서 무진의여 무슨 이유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느냐 하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그 소리를 듣고 응신(應身)하여 卽得解脫(즉득해탈)케 하기 때문이니라. 너희가 하고자 하는 대로 응하여 그 원을 성취시켜주기 때문이니라."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보면 "아들의 출세를 위해서나, 내가 가난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나 무슨 일이든지 이루어진다." 고 하였습니다.

경기불교문화원 가족여러분들도 욕심없이 일념으로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불려서 더욱 복된 나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경기 불교**



변호사 조복행

031)213-2211~3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2-2 남당빌딩 3층

다도 교육생 모집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기초반)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중급반)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중국차문화연구반)
-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오후 6시(사범반)



사찰답사

보리암을 다녀와서...

포교사/ 慧道 어윤식



여주군 가남면 신해리 212번지 관세음보살상 앞에서 꽃밭에 있는 잡초를 제거하면서 문득 한 생각에 잠겼다.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를 뽑아야 하는가?

이것도 우리의 인간의 편협한 생각으로 이러한 일을 저질러지는구나!

또 한편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수행을 더 해야 하는가?

올바른 원력을 세워서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에게 빛이 되고자 원력을 다시 세워본다.

자명종소리에 잠에서 일어나 아들 깨워 우리나라 관음3대 기도도량 보리암에 있는

관세음보살 친견하고자 자가용에 몸을 실어 수원남문 경기불교문화원 앞에 도착하였다.

나와 같은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친견하고자 여러 보살님들이 일찍 와 계셨다.

나는 그동안 강화도 보문사·양양 낙산사 흥련암·여수 향일암등 사찰순례를 다녀왔지만, 남해 보리암은 인연이 닿지 않아 가보지 못했다. 항상 가슴에는 한결같이 작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7월10일경에 경기불교문화원에서 통영 연화사·보덕암·남해 보리암으로 7월23일 사찰순례 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벅찼고, 신청을 하고 나서는 마음이 설레이기까지 했다.

버스는 07:51분에 수원을 출발하여 14:18분에 통영앞바다에 도착하였다. 15:00시 배(육지호)에 몸을 싣고 1시간10분을 지나 연화도 발을 내딛었다. 먼저 연화사 대웅전에 있는 부처님 전에 삼배한 후 보덕암으로 이동하여 저녁예불 및 108참회를 하였다. 저녁 공양후에 보덕암 태은스님으로부터 보덕암에 사찰에 대한 유례를 들었다. 이곳은 1570년 사명대사·자운대사(보운·보현·보월스님)께서 수행 및 기도를 하는 곳이었다. 사명대사는 금강산으로 떠나지만 자운대사는 이곳 연화도에서 더욱 더 열심히 정진하였다. 그 후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 자운대사는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자 거북선 도면을 만들어 전라우수사 이순신 장군에게 전달하였다. 그 이후에 계속하여 왜군을 무찌르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이순신 장군을 도와주었다.(순천선지 향도지·동국여지승람·문헌 기록) 지금은 그때 상황을 재현하고 있는 KBS 「불멸의 이순신」 드라마를 통하여 조국이 어려운 곤경이 처할 때는 승속구분 없이 나라를 위해 애썼던 애국심을 엿볼 수 있다.

이런 역사가 깊은 곳을 20년전 前 총무원장을 역임하신 고산 큰스님께서 큰 원력을 가지고 98년 연화사 낙성식을 보았고, 2004.12.3 보덕암 낙성식을 보았다. 이곳은 육지보다 3배정도 힘이 들었다. 또한 동네사람들 반대 너무 거세었지만 스님께서서는 기도로 모든것을 극복하고 제5대 관음성지를 건설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 보살행을 이루고자 108배 정진기도를 하였다.

7월24일 09:00시 배를 타고 통영에 10:30분 도착하여 버스를 갈아타고 12:00 경남 남해

보리암에 도착하였다. 다시 보리암 셔틀버스로 15분정도 타고 산중턱에 내린후 다시 20분정도 걸어서 보리암에 드디어 도착하였다. 관음전에 모셔있는 관음보살상은 1900년 前 가락국의 시조인 김수로왕때 아유타국의 공주가 직접 모셔 온 것이다. 위 관음보살상을 지금도 관음보살의 위신력으로 나라의 영원한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고 있다.

이곳에서 기도하여 나라를 건국한 사람이 있다. 그분이 바로 태조 이성계 대왕이다. 그이후로 많은 불자들로부터 기도도량으로 많이 찾는 장소로 유명하게 되었다. 나도 해수관음상 앞에서 아육다라삼막삼보리(무상정등정각)깨침을 얻기를, 또 이 세상을 좋은 세상·밝은 세상·행복한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 열심히 정진할 것을 다짐하여 본다.

이번여행에 수고해주신 진철회문화원장·권중서부원장·이현주간사님께 지면을 통해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사찰순례에 동참하신 46명 모든 불자님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부처님 전에 기도를 드린다.

내 자신의 自性佛을 밝히듯이 다른 사람들도 각자 自性佛을 찾을 수 있도록 먼저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불자가 될 것을 다짐하여 본다.

불기2549년 8월1일
마하반야바라밀 경기 불교

우리는 결국 죽음의 문 앞에 이른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아는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서로 다투지 않는다.

- 법구경 6 -

People, other than the wise, do not realize, "We in this world must all die,"
The wise realize it and thereby their quarrels cease.

- DHAMMAPADA 6 -

중국어, 영어 회화 수강생 모집

- 생활 중국어 : 매주 화,목요일 오후 화,목 오후3시
- 생활 영어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30분
- 기 간 : 3개월 과정
- 수강료 : 중국어(60,000원), 영어(6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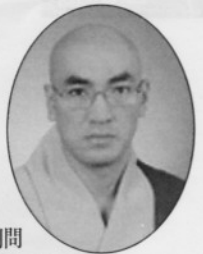
금강경 강좌안내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9월2일 개강)
- 내용 : 금강경 • 기간 : 4개월 과정
- 수강료 : 120,000원
- 강사 : 가섭스님



유마힐소설경(維摩詰所說經) IV

虎岩 迦葉스님



3막 14장으로 구성된 연극이라고나 부르고 싶은 정도의 작품이다.

즉 제1막은 비사리 교외의 암라수(Amra) 우거진 정원(불국품에서 보살품에 이르는 4장)이요, 제2막은 유마의 방(문수사리문질품(文殊師利問疾品)에서 향적불품(香積佛品)에 이르는 6장), 제3막은 다시 이전의 암라수 정원(보살행품(菩薩行品)에서 촉루품(觸累品)에 이르는 4장)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각 장면에 전개되는 의표를 찌르는 듯한 무대 위의 변화는 매우 훌륭해서 극히 상징적인 동시에 회화적이다. 대사의 교환이 쉽게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이렇게 연출이 보람 있는 경전은 그리 흔한 것이 아니겠다. 다만 때로는 대사에서 어려운 논리를 전개시키는 까닭에, 그 점이 여간 교묘히 구성되지 않으면 따라가지 못하는 결과가 될 지도 모른다는 점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이 경전은 드라마틱한 부분으로 차 있다. 이를테면 이런 장면이 나온다.

유마가 좁은 병실에 누워 있는데 문수 보살을 선두로 많은 수도자와 석가의 제자들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이 문병을 와서 모두 방안에 들어온다. 좁은 병실이 어느 사이엔가 몇 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수용 할 수 있는 큰방으로 변해 버리는 광경은 연출상에서는 참으로 힘이 흐르는 장면이어서 연출 효과가 발휘될 만한 것이겠다. 그다음 이 문병객 속에 있던 사리불은 이 방에 의자 하나, 방석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자 유마는 그 마음을 눈치채고 방안에 상도 할 수 없게 큰 사자좌(獅子座; 부처님이 앉는 의자)를 가져다 놓고 사람들을 앉게 했다. 사리불 같은 사람에게는 그 의자에 기어오를 재주도 없었다……. 이런 장면은 어떻게 연출할 수 있을지 연출가의 기술이 해결해야 될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변화가 많은 장면의 전환은 이 경전 곳곳에 나타나 있어서 앞으로 이 글을 써 가는 사이에 틈틈이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이 경전이 연출의 보람이 큰 드라마틱한 구성을 가진, 대승 경전 중에서도 특이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려 한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특이한 경전인데다가 유마로 상징된 제가 신자의 입장이 특히 선명하게 묘사되어 있으므로, 이 경전이 널리 읽히게 되었다 해도 이상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앞서 말한 『반야경』중 대품 반야의 주석서 『대지도론(大智度論)』을 쓴 나가르주나는 그 논서에서 자주 이 경전을 인용했고, 얼마 뒤에 바수반두(Vasubandhu)도 이 경전의 주석을 썼다고 전하는 것을 보아도, 이 경전이 주목되어 온 것을 충분히 짐작 할 수 있다.

당(唐)의 현장(玄)은 인도에 가서 비사리를 방문했을 때 그 도시에 유마의 옛 집이 남아 있더라고 전하고 있으나, 이 경전에 등장한 가공의 인물인 유마가 어느 사이엔가 전설화되어 실제의 인물처럼 다루어지고 있었던 사실도 이 경전의 영향이 컸던 것을 웅변으로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경전은 대승 불교 전파의 물결을 타고 중앙 아시아의 여러 나라말로도 번역되었으며, 중국에 전해져서는 일곱 번이나 번역되었지만 산스크리트로 씌어진 원전은 현존하지 않는다. 겨우 『대승집보살학론(大乘集菩薩學論)』이라는 책에 인용된 단편이 남아 있을 따름이다.

◆ 유마경의 번역

『유마경』은 중앙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우전 어(이란 어 계통, 지금의 Khotan 지방에서 쓰이던 말) 또는 소그드 어(페르시아 어 계통, Sogdhi)로 번역되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들이 『유마경』이라고 부르는 것은 물론 중국어로 번역된 명칭을 따른 것이다.

중국에서 가장 일찍 나타난 것으로는 엄불조(嚴佛調)가 후한 영제(靈帝)의 중평(中平) 5년(서기 188)에 번역했다고 전하는 『고유마힐경(古維摩詰經)』 2권이 있으며, 그 후에도 자주 번역되었으나 현존하는 것은 두세 가지 뿐이다. 그 중에서 가장 널리 애독된 것은 앞에 나온 『금강반야경』이나 『대품반야경』의 역자인 구마라습이 요진(姚秦)의 홍시(弘始) 8년(406)에 번역한 『유마힐소설경(維摩詰所說經)』 3권으로서 일명 『불가사의 해탈』이라고 불리는 책이다. 새로운 번역으로서 는 앞에 든 현장이 당나라 영희(永徽) 원년(650)에 번역한 『설무구칭경(說無垢稱經)』이 있어서 번역에는 정확을 기한 듯 하나, 구마라습의 유창한 역문(譯文)에는 멀리 미치지 못하므로 별로 읽히지 않고 있다. 이 밖에도 『유마경』에는 티베트어로 번역된 것이 있어서, 산스크리트의 원전에서 직역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원전이 없어진 오늘 『유마경』의 원형을 밝히는 데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고 있다.

경기 불교

8월달 후원회비 내주신분들(7월1일~8월1일)

정성어린 후원금 감사합니다.

김태제, 조권형, 윤광숙, 한영규, 최숙련, 박경아, 홍인숙, 최명길, 김미월, 이기순, 이선우, 김영희, 이대곤, 진철희, 김순자, 김의순, 조창윤, 윤영무, 정무근, 권중서, 이상범, 김기현, 박청용, 이임성, 김말수, 김준옥, 안영찬, 이영옥, 최정자, 장옥훈, 김영동, 이난호, 박선현, 김은주, 김정수, 이태순, 이태갑, 송호윤, 윤영예, 김용필, 진상범, 조명숙, 이남덕, 김순옥, 김준호, 양준영, 송경주, 김수은, 김미정, 염규용, 이병일, 양황경, 조병희, 배민한, 양정례, 심화식, 한혜승, 조남중, 문양순, 정현숙, 차용희, 이상남, 정경화, 서의호, 두금덕, 이기원, 조성남, 함대식, 장영남, 김은성, 손용식, 주인수, 이수교, 배정희, 김재숙, 서상렬, 공석남, 박정자, 김순애, 진주범, 어윤식, 구상민, 이종숙, 이규중, 김명옥, 주은화, 강재수, 이종옥, 현병국, 민춘홍

기초교리 수강생 모집

- 매주 월요일 7시(9월7일 개강)
- 내용: 불교기초교리, 사찰의 구조 등
- 수강료: 50,000원
- 기간: 3개월
- 강사: 포교사 및 전문법사

세종 법무사사무소

법무사 염 규 용
TEL. 031) 212-0033
HP 018-313-3838



경기불교 소식

● 백인에게듣는다(스물여덟번째)

불기2549(2005)년 7월 16일(토)오후3시에 본원 큰법당에서 설산 큰스님의 왕생극락과 생활불교라는 주제로 열린법회를 열었습니다.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때 해탈을 원할 때 관세음보살을 찾으시면 현세의 어려움에서 헤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 7월 사찰답사

7월 사찰답사는 통영 연화도에 있는 연화사와 보덕암, 남해 보리암을 다녀왔습니다. 통영 연화도에 있는 보덕암은 기도도량으로 사찰이 아담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남해 보리암은 3대 해수 관음상으로 유명한 사찰중의 한곳으로 산세가 아름다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무탈없이 잘 다녀왔습니다.

행사안내

● 불교성지 및 백두산 등정

경기불교문화원(원장/진철희)에서는 8월 23일 ~ 8월 30일까지 중국(요녕성,흑룡강성,길림성)에 있는 불교성지(안산/옥불사,백담사)를 비롯한 고구려유적지와 백두산 등정을 답사원 25명과 함께 실시한다.



● 백중(우란분절) 법회

경기불교문화원에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백중법회를 불교의식을 담당하는 권혁찬 선생님일행들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일 시 : 2005년 8월 19일(음7.15) 오후 2시

장 소 : 경기불교문화원 큰법당



● 백중지장기도

백중 특별 인가등 1인 10,000원(49일)

백중 위패 일만원(부부 1위)

= 상세 선망부모,태중아기,유주무주영가들의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특별영가등을 백중지도가간동안 밝혀드립니다.

● 연꽃 축제

- 대원 티벳박물관(관장 현장스님)에서는 개관 4주년 기념 "조선불화에 나타난 지옥사상"을 10월 30일까지 전시하며, 대원사 구품칠지 연못에서 세계 각국의 연꽃과 수련 500여종을 8월말까지 일반에 공개합니다. (TEL:061-852-1755)

- 아산 인취사(주지/혜민스님)에서는 제13회 "백련시사" 화가 8월 27일에 실시하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TEL:041-542-6441)

● 깨달음으로 가는길

동화사에서는 8.6~10.9까지(10회)매주토요일 오후 3시~6시까지 동화사 계을 수행 대법회(종진스님,마성스님,혜능스님, 지운스님, 법혜스님,철우스님,각목스님,경성스님,지관스님)를 통일 대불전에서 개최하며,회향일(10.9일)에는 보살계 수계 법회도 봉행합니다. (TEL:053-985-4404)

과 정	과목명	강사명	수강인원	수강료	수업내용	수업일	비고
불 교 강 좌	불교의식	권혁찬	20명	3개월 60,000원	불교의식(목탁집전)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수시
	기초교리	전문법사	30명	3개월 50,000원	불교기초교리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9/7 개강
	위빠사나	이종숙	20명	15주 80,000원	법문, 경행, 좌선, 면담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9/1 개강
	경전강좌	가섭스님	30명	16주 120,000원	금강경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9/2 개강
	참선강좌	김태완	20명	4주 20,000원	참선법회	매월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오후 1시	수시
	불교미술의 이해	권중서	20명	3개월 90,000원	한국 불교미술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수시
	불교문화대학	대덕스님	40명	4주 50,000원	불교전문인 양성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문 화 강 좌	요 가	문명순	20명	3개월 90,000원 (120,000)	생활요가(주2회)	매주 월/수요일 오후 7시	수시
					임산부요가(주2회)	매주 화/금요일 오후 3시30분	
	단월드	백종복	20명	3개월 60,000원	단전호흡	매주 화/목요일 오후 3시	수시
	다도기초	홍인숙	20명	3개월 90,000원	생활다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9/5 개강
	다도중급	윤영예	20명	3개월 90,000원	다도중급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9/6 개강
	생활역학	보현진열	20명	12주 100,000원	역학,운세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수시
	중국어회화	안미영	20명	3개월 60,000원	왕초보중국어 회화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영어회화	박영희	20명	3개월 60,000원	왕초보영어교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주부반/ 수시
	경락	고철성	20명	3개월 90,000원	한방경락/건강관리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수시
초청 강좌	백인에게 듣는다	범주스님	100명	무료	현대인과 선학	셋째주 토요일 오후 3시	
	사찰환경 답사반	전문안내원	40명	30,000원	도피안사, 제2땅굴, 철원평야, 심원사	셋째주 일요일 오전 7시30분	

■ 회원가입안내

경기불교문화원에서는 회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강의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원 회원에 가입하시면 1년간 "회원증"을 밝혀드리며 후원 회원님들의 회비는 본원의 운영과 소외된 이웃에 대한 배려와 나눔과 생명공동체 실현에 쓰여집니다. ※ 각종 후원금은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금은행 : 신한은행 602-02-512120 경기불교문화원 김태제

• 후원회원 : 월 10,000원 (초·중·고·대학생 : 5,000원) 이상을 납부하는 개인이나 단체

• 전화주시면 은행에 가실 필요없이 CMS로 즉시 처리하여 드립니다.

TEL. 031-251-1083 / 257-1083 FAX. 031-251-1779